

# 1) 구글 지도에 우리집 거실이..전세계에 공개된 사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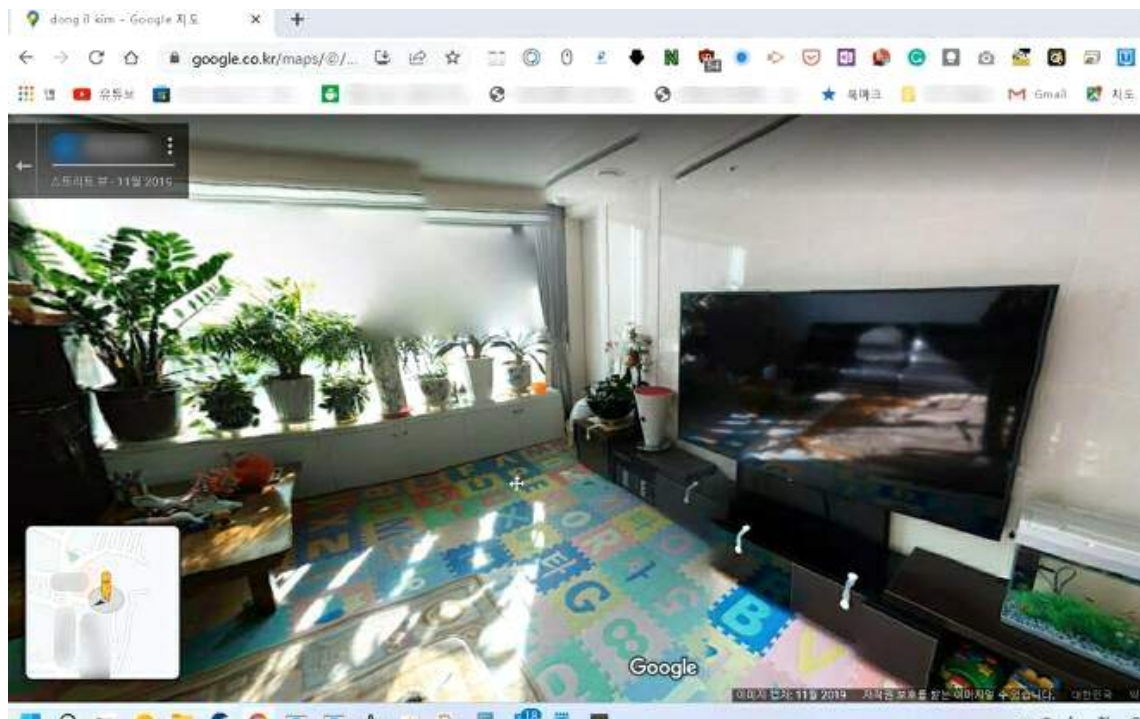
김대호입력 2022. 10. 15. 08:00

106

집 안 360 도 촬영 사진 3 년간 인터넷 게시

구글 "개인 주택 내부 사진 수집하지 않아"

사진 어떻게 올려졌는지 미스터리로 남아



구글 지도에 올라온 가정집 거실 360 도 사진 제보자 A 씨 제공. 재판  
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전 세계인이 보는 구글 지도에 한 가  
정집의 실내 360 도 사진이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올려져 있었던 것  
으로 나타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A 씨는 지난 9 일 구글 지도에서 거리 모습을  
360 도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스트리트 뷰'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아파  
트 단지를 살펴보다 깜짝 놀랐다. A 씨가 사는 아파트의 스트리트 뷰를

클릭해보니 그의 집안 모습이 나오는 것이었다. 구글 스트리트 뷰에는 A 씨 집 안의 거실과 부엌, 천장, 바닥 등을 360 도 각도로 돌려가면서 상세하게 볼 수 있었다.

더 이상한 점은 이 사진이 2019 년 11 월 A 씨에 의해 올려진 것으로 나온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80 살인 A 씨는 최근 컴퓨터를 이용하며 시간을 보내면서 구글 스트리트 뷰 기능을 처음 배웠고 360 도 사진은 찍을 줄도 모르고 찍은 적도 없다고 한다. A 씨는 해킹을 의심하고 있으며, 구글 지도 스트리트 뷰의 업로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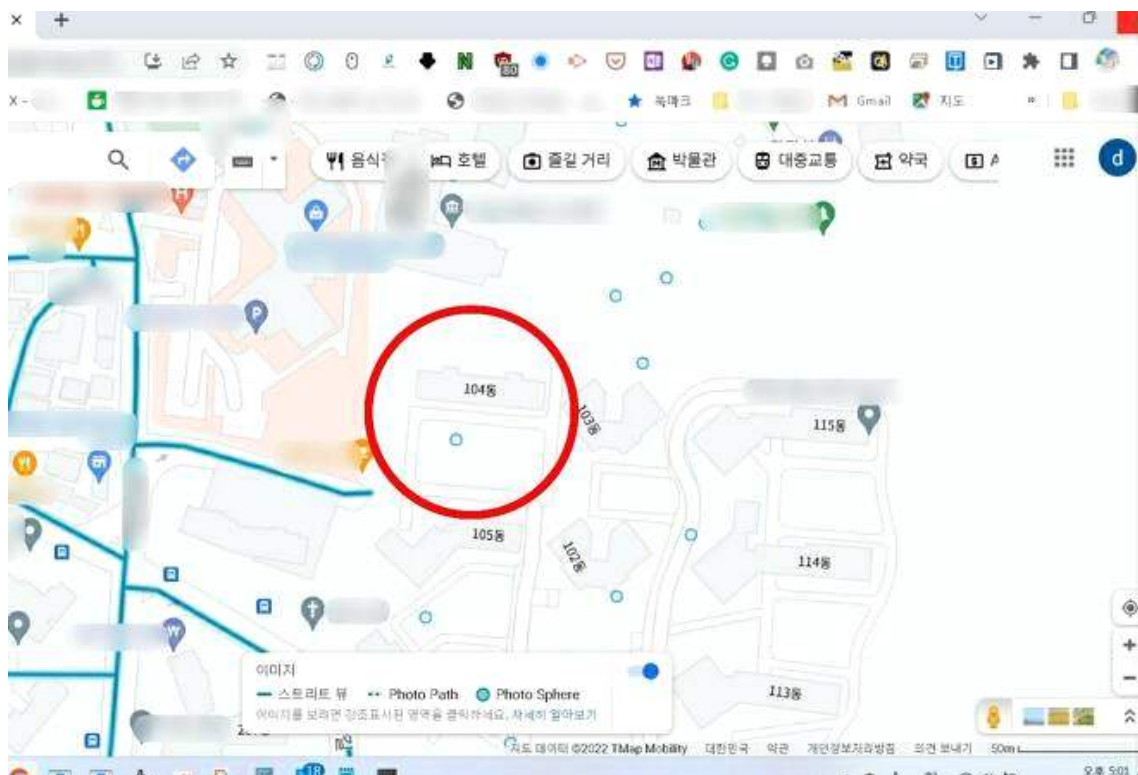
철물점을 이 하나에 통째로 담았다  
위티샵

A 씨는 이번 일을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보고 지난 11 일 구글에 사진을 내려달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구글은 다음날 오후쯤부터 구글 스트리트 뷰에서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왜 그런 사진이 게재됐는지 아무런 설명도 사과의 말도 없었다.

A 씨는 "스트리트 뷰에 실린 사진은 2013 년 어린 손주들이 자주 놀러 올 때 넘어지면 다치지 않도록 바닥에 쿠션을 깔아놓았을 때의 모습이

다. 지금은 바닥 쿠션을 제외하고는 TV 나 소파, 부엌 테이블 등이 모두 같다. 우리 가족 중에는 이런 사진을 올린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도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름의 경우 옷도 대충 입고 거실에서 많이 생활하는데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하고 불쾌하다. 구글은 사과나 설명도 없이 문제의 사진만 내렸는데 너무 무책임하다. 구글은 전화를 받는 사람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찾기 힘들어 이번 사진을 내리는데도 많이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구글 지도 스트리트 뷰 화면 구글 지도의 작은 원을 클릭하면 스트리트 뷰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안의 스트리트 뷰에서 가정집 거실의 360도 사진이 게시됐다. 제보자 A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상은 확인 결과 이용자가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구글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구글 지도의 스트리트 뷰는 개인 소유 주택의 내부 사진을 수집하지 않으며, 이용자 역시 동일 행위를 금지하는 엄격한 규칙을 적용

하고 있다. 해당 규칙을 위반하는 이용자 제공 콘텐츠를 발견할 경우, 구글은 해당 이미지를 제거하고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스트리트 뷰를 업로드하기 위한 전문 차량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이용자들이 직접 사진을 올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daeho@yna.co.kr